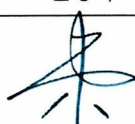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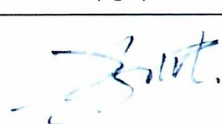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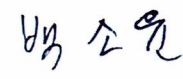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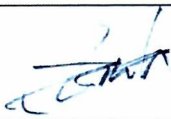



## 제10기 대학평의원회 제1차 회의록

일 시	2025년 2월 4일(화) 14:00
장 소	본관 4층 로터스홀
참석자	11명 / 박태선(동문 및 교외인사), 김태호(동문 및 교외인사), 이준혁(동문 및 교외인사), 권승구(사회과학대학 식품산업관리학과), 류준형(과학기술대학 창의융합공학부), 신성준(의과대학 의학과), 김계철(직원노동조합), 이용수(교양융합교육원 교양융합팀), 백소운(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이태형(과학기술대학 창의융합공학부), 노명호(교무처 교원인사실)
불참자	2명 / 장원희(바이오시스템대학 생명과학과), 류용현(미래융합대학 융합보안학과)
<p>&lt;개회 선언&gt;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총 13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함</p> <p>&lt;안건 상정&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기 대학평의원회 의장, 부의장 선출</li> <li>2. 2025학년도 서울/WISE/의료원 본예산(안) 자문</li> <li>3. WISE캠퍼스 의학계열 융자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문</li> </ol> <p>&lt;주요 의견&gt;</p> <p>■ 제10기 대학평의원회 의장, 부의장 선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중혁 기획예산실장이 대학평의원회 주요 역할과 운영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방법을 설명하다.</li> <li>2. 제10기 대학평의원회 의장직에 박태선 평의원, 부의장직에 장원희 평의원이 호선으로 추천되고, 이에 대하여 참석한 평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다.</li> </ol> <p>■ 2025학년도 본예산(안) 자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원 김형석 전략기획팀장이 산하 병원의 질료 실적을 설명하고, 교원 수급 현황에 대하여 말하다. 일산병원은 의사 인원의 감소로 진료 수익이 감소하게 되었지만, 경주병원에는 로봇 수술기 도입, 선형 가속기 사업 등이 성공을 거두며 2024년도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되고, 2025년도에는 AP 협력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위상이 올라가고 있음을 밝히다. 한편, 한방병원은 한방 의료 사업이 침체가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당 병원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를 도입했다고 덧붙이다.</li> <li>2. 권승구 의원이 일산병원 전공의들이 일시적인 사유로 사직하였다가 사유 해소 시 복직하는지를 질의하다.</li> <li>3. 김형석 팀장은 일산병원 교원이 2021년에 비하여 100여명이 감소한 상황인데 교원들의 당직 횟수도 증가하여 대형병원으로 교원 이탈이 발생하기도 하고,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교원을 다시 스카웃 제의를 한다고</li> </ol>	

간	권승구	이용수	백소운
서			
명			

- 말하다. 또한,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대학병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쉬운 여건이 아님을 설명하다.
4. 류준형 의원이 병원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는 기준은 베드 수인데 경쟁 병원에 비해서 우리대학 베드 수는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외래 수익은 우리대학 병원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일산권이냐 서울 북부권의 중심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질의하다.
  5. 김형석 팀장은 일산권이냐 서울 북부권의 중심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다음으로는 고난이도 수술을 하고 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충족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6. 신성준 의원은 병원이 베드 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가신 분들을 보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말하다.
  7. 김태호 의원이 교원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선진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8. 김형석 팀장은 개인 병원이 아닌 이상 급여는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처우의 개선이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선진 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일산병원의 경우 ZAP-X(\*현존하는 방사선 수술 장비 중에서 뇌 및 두경부 질환 치료에 가장 최적화된 방사선 수술 시스템으로 평가 받음)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도입해서 병원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다.
  9. 김태호 의원은 의약 분야는 조속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경영 체계에서 앞설 수 있는데, 당장 손익만을 우선시하기보단 장기적인 차원의 병원 전략이 담긴 시나리오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10. 신성준 의원이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교 출신의 의료진은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혹은 좋은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나가지 않고 지키는 경향이 있고 학교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다고 덧붙이다.
  11. 박태선 의장은 병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이므로, 학교와 의료원은 세밀하게 마스터플랜을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전하다.
  12. WISE캠퍼스 전략예산팀 남유철 과장이 등록금이 학부 및 대학원 4.98%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말하다. 2025학년도 예산 편성 방향으로서는 비전 2030 발전 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지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운영 강화를 방향으로 설정하였음을 설명하다.
  13. 류준형 의원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상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성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다.
  14. 남유철 과장은 등록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II 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말하다.
  15. 이용수 의원은 등록금을 인상했고 중국인 유학생도 많이 입학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된 만큼 학교 운영은 원활해지는지 질의하다. 아울러 등록금 인상으로 인하여 국가장학금II 제한받는 것이 올해만 적용되는 것인지를 문의하다.
  16. 남유철 과장이 등록금을 인상했지만 자금의 여유분이 있는 상황도 아님을 말하며, 중국인 유학생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자금 여유분의 급격한 감소를 줄일 수가 있었다고 설명하다. 또한, 국가장학금II 제한 관련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해는 국가장학금II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차년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하다.
  17. 류준형 의원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등록금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제 비용을 내는 학생 입장에서도 수궁이 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18. 신성준 의원이 최근 총 8개 대학의 의대 인증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대학은 4년 인증을 받았는데 2년 인증을




간	권승구	이용수	백소운
서			
명			

받은 곳도 있다고 말하고, 의대 교육과 관련 인증 평가를 잘 받았다고 설명하다. 다만, 예과 과정 이후 본과 과정 진입했을 때 120명 되는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2년간 의대 신축 건물이 지어져야 하고, 현 교원 상황으로는 120명의 학생을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더 많은 교원이 충원되어야 함을 말한다. 아울러 우리 의대도 지역 학생들을 선발해서 향후 이 학생들이 실습할 때는 가급적 지역 내에서 실습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19. 박태선 의장이 의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다.
20. 남유철 과장이 교육부에 환경개선을 위해 신청 금액을 내긴 했으나 아직 구체화 된 액수는 아님을 말하고, 교육부가 배정할 금액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하다.
21. 서울캠퍼스 방중혁 기획예산실장이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은 4.98% 인상했고, 학부의 약학대학은 4.1%, 외국인은 5.3% 인상했음을 말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를 4차례 거쳤음을 설명하다. 또한, 방중혁 실장이 올해 주요 사업 계획으로 120주년 기념사업, RISE 사업 대응, 로터스관 단계적 개발, ESG 경영 및 디지털 혁신 등에 대해 언급하다.
22. 김계철 의원이 로터스관 신축 관련 예산에 대해 설계, 인허가 등의 비용까지인지 아니면 공사 및 선수금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질의하다.
23. 방중혁 실장이 과거 이사회에서 로터스관 신축 관련해서 승인받았을 때와 현 공사 비용은 차이가 있고, 서울시 남산 고도 제한 완화에 따라 지하로 들어가기보다는 지상으로의 설계 변경을 올해 9월까지 추진하고자 함을 말한다.
24. 백소운 의원이 교내 장학금이 증액되었으나 이 금액 안에 국가장학금Ⅱ 유형 보존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늘진 않았다고 보이고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하며, 장학금 증액에 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하다.
25. 방중혁 실장이 국가장학금Ⅱ 관련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리더 장학과 성적 장학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다.
26. 김계철 의원이 대학 발전 방향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교원이 들어와야 대학에서 학생들이 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수반되어 앞으로 경쟁력 확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 WISE캠퍼스 의학계열 융자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문

1. WISE캠퍼스 전략예산팀 남유철 과장이 의학계열 신관 건립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교육 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고, 이 건에 대해 이사장님 승인 후 이사회를 거친 내용임을 말한다. 융자 신청 최초 금액은 총 200억원이지만 실제 교육부에서 각 학교별로 금액이 배정된 상태는 아님을 설명하고, 향후 교비 재원으로 상환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거쳐야 함을 덧붙인다.
2. 류준형 의원이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예상 금액을 고려했을 때, 의학계열 교육 환경개선에 충분한 금액인지 질의하고, 신축 건물을 건축하고 울산대의 사례처럼 교육은 일산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간 서 명	권승구	이용수	백소운
			

<기타 의견>




1. 권승구 의원이 외국인 학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동대 출신으로서 기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ODA 사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다.
2. 류준형 의원이 건물 신축이나 120주년 기념 사업 등 거액이 필요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향후 상세한 자료 요청과 함께 보완 설명을 해준다면 이 자리에서 사업 내용을 처음 접하는 평의원분들께서 학교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다.

<회의 결과>

1. 의장으로 박태선 의원, 부의장으로 장원희 의원 선출
2. 2025학년도 서울/WISE/의료원 본예산(안) 원안대로 자문 완료
3. WISE캠퍼스 의학계열 융자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문 완료

<회의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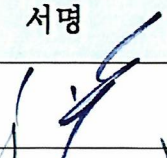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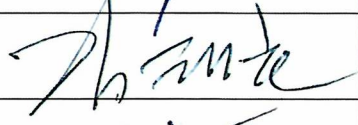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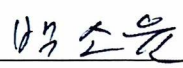

의장은 추가 질문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간 서 명	권승구	이용수	백소운
			

- 이상 -

2025. 2. 4.

위의 사실을 확인함.

구분	성명	서명
대학발전 평의원	박태선	
대학발전 평의원	김태호	
대학발전 평의원	이준혁	
교원	권승구	
교원	장원희	
교원	류준형	
교원	신성준	
직원	김계철	
직원	이용수	
학생	백소윤	
학생	이태형	
조교	류용현	
행정조교	노명호	